

해피밀 시즌 4-5호를 발간하며,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학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이번 해피밀은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에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에서 비방과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눈물의 이별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크리스천'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고 그렇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위해 쫓아야 합니다. 이는 가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목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9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행 19:21-22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삶

21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바울은 약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며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복음의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그 후에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하는 그의 모습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전혀 친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가장 배타적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합니다. 나아가 그런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도 헌신하고 낮아지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헌신적인가? 겸손한가? 낮아지고 있는가?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고, 교만하고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을 더욱 묵상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나요?
2.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갈 힘을 구합니다.





행 19:24-27

분노가 아니라 긍휼을

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바울의 사역이 거의 마쳐질 시점,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은장색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가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의 다른 은장색들의 분노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의존하게 합니다. 쉽게 분노하게 하고, 다른 이를 위협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사실에 대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은장색들이 자신과 함께 바울 일행을 공격하도록 선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신자들이 이러한 불의의 공격 가운데 방치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서기를 통해 이 소동을 진정시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은 무사히 에베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우리도 이러한 입장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데메드리오처럼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바울 일행처럼 그 분노와 핍박을 한몸에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다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처럼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은장색들의 분노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상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되돌립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똑같이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긍휼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상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시민들은 왜 분노했나요? 여러분도 그런 분노의 경험이 있나요?
2.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여러분이 주님처럼 대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행 20:1-5****진정한 권면**

1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해피인사이드**김동완 목사**

에베소에서 소동이 끝난 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헬라, 드로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지역은 달라졌지만 바울의 사역은 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한다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그 뜻은 "위로하다", "촉구하다", "격려하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단순히 위기를 겪은 교회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권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면은 왜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권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아픔과 어려움, 문제들이 찾아오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올바른 곳, 올바른 사역을 향해 힘쓸 수 있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권면의 실체는 하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도 말씀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우리의 곁에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어야 할 것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가벼운 말이나 세상의 헛된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저녁에 있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바울은 무엇으로 권면하고 있나요?
2. 사람의 위로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권면을 받는 하루 되도록 결단합니다.





행 20:7-12

지쳐 쓰러질 때에도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 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 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 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오늘날 교회들은 공휴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살아가던 시대에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탓에 성도들은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모여 예배하곤 했습니다. 본문 속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곧 바울은 떠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유두고의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로써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떡을 떼고, 날이 새도록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경험은 신자들에게 단순한 놀라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로를 줍니다. 나아가 더욱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 읽을 마음조차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지쳐서 쓰러진 것만 같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겹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 기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모든 공동체의 마음이 위로 받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2. 생명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행 20:13-16

허비하지 않는 삶

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해피인사이드

김동완 목사

두기고를 살리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눈 바울은 다음 날 밀레도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속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무척 서둘렀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전혀 지체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바쁘게 움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시간을 아끼는 영역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인생”, “안전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미덕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의 설교와 책을 통해 그것은 비극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글을 잠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편타 고지에서 살며, 9미터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껍질을 모은다... 마지막 심판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을 그려 보라. "주님, 제가 모은 조개껍질 좀 보실래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곤 고작 세속적인 열심 끝에 거둔 노후의 열매 밖에 없다면 무척 부끄러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위해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바쁘게 살도록 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재정을 쏟고 계신가요? 다른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많은 사람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예화 속 사람들과 같은 삶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이런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이신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청소년부 미니홈피

사도행전 20장 13-16절 미션

1. 암송하기

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앓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 바울이 앓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2. 묵상하기

- 1) 내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삶인가요?
- 2) 이를 위해 내가 가장 애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 3) 예수님 안에서 허비하지 않고 헌신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3. 기도하기

말씀을 읽고 느낀 점과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행 20:17-21

진정성이라는 힘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인생을 살아가갈 수록 '진정성'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서로 의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한 사람의 요청과 그들의 설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의심에 대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 작은 순간 이러한 모습은 늘 보입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에도 우리의 태도(스탠스)는 항상 '의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게 됩니다. 밀레도는 소아시아 서쪽 끝에 위치하며 에게해를 걸으며 한 매우 큰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30마일 정도이며, 이것은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닐 것인데, 누군가는 바울의 초청을 전하기 위해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갔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당시 배는 바람이 맞으면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다소 무리한 부탁에 흔쾌히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에는 바울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연설을 통해 믿는 자의 '진정성'이 어디에서 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내면'을 가졌었는지 고백합니다. 바울의 태도는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의 감정은 항상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무쪼록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니다. 소아시아의 장로들은 바울의 이 진정성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바울을 만나기 위해 30마일을 한 두 걸음으로 여기고 달려온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성을 묵상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정성을 자연스레 만나게 됩니다. 그 분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발을 씻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 그 자체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성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도 마다치 않게 하며, 우리의 평생의 걸음을 다 드리게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최근 진정성있게 다가온 사람이 있나요?
2.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진정성인가요? 예수님의 진정성인가요?





행 20:22-24

부담스러운 길을 걸으며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자기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의 자명한 본능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입신이 보존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따라 종교인들은 그 분이 자신을 보존하시는 수호천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며, 그 분의 말씀과 뜻을 곡해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과 목적은 '자기보존'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충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목마다 만나는 선지자들과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응답은 '결박',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보존'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성령님의 응답을 듣고 '와! 성령님 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잘 피해갈게요. 다음 번에도 잘 알려주세요'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생명, 자기 보전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 부르심과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번 이러한 모습을 우리네 삶 속에 대입해봅시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너가 이직하여 그 회사로 가야한다면, 발령받아 그 지역으로 가야한다면, 너의 모든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의 눈치를 받게 될 것이며, 말 듣지 않는 후배들로 인해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될거야. 그러나 그 곳에 내가 사랑하는 잃어버린 백성이 있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게 될까요? 교회의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답'이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이 말한 24절의 고백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부담감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로마서 15장 30-31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요청 앞에 바울은 함께 그리스도인된 지체들에게 자신의 부담을 솔직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스럽고 용기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부탁을 할 수 있는 동역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길(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하는 동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셨으며, 그 길을 완주하사 친히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1.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신가요?
2. 최근 동역자와 함께 나눈 기도제목은 무엇이었나요?



**행 20:25-38****부탁하노니**

... 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

해피인사이드**이동원 목사**

교회는 항상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시간도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29절 말씀과 같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 입니다. 이 사나운 이리의 특징이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어그러지다(διαστρέφω)는 말은 타락되다, 미혹하다, 비뚤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만, 비뚤어지게 말하여 결국 '자신'을 따르게 하는 존재들(30절)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따라 에베소 교회에도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리들의 공격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따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딤후 2:15). 사나운 이리들의 공격은 말 그대로 '사납'습니다. 여기에서 사납다는 말은 무게감이 있고 중대하며 묵직한 공격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도처에 깔린 사나운 이리의 공격은 정말 유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3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의 공격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그 분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록에 따라 에베소 교회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사나운 이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10년 혹은 20년 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는 그들이 바울과 및 사도 요한(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권고를 따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의 공격은 사납고 맹렬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되신 예수님과 그 분의 말씀을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심각하게 타락되었을 때에도 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권고를 받아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 삶에 다가온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나운 이리가 있으신가요?
2. 어그러진 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은혜를 나누어주세요.





행 21:1-6

동질감, 이질감.

1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는 그 나아가는 여정을 제법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밀레도를 떠나 향해했던 행적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찬찬히 묵상하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두로에는 바울과 일면식은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마 스테반의 박해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두로에 복음을 전하여 생겨난 교회일 것입니다. 두로 교회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권고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일찍이 그가 밀레도에서 했던 고백과 동일한 선언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만나는 두로교회 성도들과 일주일 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은 주안에서 교제하고, 때론 지나간 전도여행의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다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단 일주일간 함께했던 두로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온 가족을 대동하고 바울을 전송합니다. 마치 3년간 함께 동거동락했던 에베소교회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신선합니다.

단 일주일이었지만, 주 안에 한 가족되고 같은 처지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바울과 두로교회 성도들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두로 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원치 않지만 가야하는 그길을 말입니다. 박해로 인해 사랑하는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두로로 도망쳐야 했을 때의 그 마음과 환란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질감은 그들을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가깝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바울이 나아가는 그 길, 마치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닮은 그 뱃길, 그 여정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동질감이었습니까? 이질감이었습니까?

해피인플루언서

- 1-3절 말씀을 읽으며 동질감을 느끼셨습니까? 이질감을 느끼셨습니까?
-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나누어주세요.





행 21:7-16

한 순간도 잊지 않도록

...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무겁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 바울이 도착하는 지점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때론 망각도 필요한 법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잠시 평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 대전 당시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담배를 피고 저급한 농담을 하며 값싼 웃음으로 끔찍한 현실에서 도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지금 그러한 여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묵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었습시다. 그 분은 이 땅에 와서, 태어나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힐 것을 모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 분은 십자가 도상 위의 고통과 죽음을 염두하시며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단 한 순간도 저급한 농담을 하며 자신의 사명을 놓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단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 않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사명은 한 두 번 내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에서 단 한 순간도 도피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순간은 참으로 무겁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밤 겈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마 26: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기 좋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정말 홀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친히 찾아와 주의 사명을 잊지않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바울의 요청에 따라 권면하길 그치기도 하였습니다(13-14절). 이러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기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진 않았나요?
2. 사명을 놓지않도록 동역해주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행 21:17-26****절제의 기쁨**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 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말하니 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21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해피인사이드**포아론 목사**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 않던 달리기를 하는 것도,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예배를 성실히 나오는 것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그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며 인상을 찌뿌리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낱알이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전진들을 이루어가셨는지 빠짐 없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 중 회심한 자들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에는 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더라(21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혹여나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까 염려했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23-25절)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알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주셨고, 새로운 언약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굳이 율법에 얽매야 하느냐'라며 따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방법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가 이 방법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그의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유대인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의 신앙의 방향성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고전 9:20).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 생각에 나와 맞지 않는 옷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절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 절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해피인플루언서

1.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했던 경험이 있나요?
2.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했던 적이 있나요?





행 21:27-36

사랑이 없어...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사랑하는 연인 간에 사랑이 있을 때는 뭘 해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침을 흘리며 자는 모습도, 헝클어진 머리도, 치아에 낀 고춧가루도 모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의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신발을 가지런히 두지 않는 모습도, 주말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도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보다 나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한 서원을 감당하기 위하여 7일 동안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오랜 기간 복음을 위해 출타했었던 사도바울은 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무리를 충동하였습니다. 충동의 사유는 바로 28-29절의 내용인데, 첫 번째도 소문, 두 번째도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바울이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소문이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망가뜨린 적도 없고, 그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유대인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좋지 못한 과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성전에 출입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조차도 소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도 바울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천부장을 그곳에 예비하사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구금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 때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옥 문이 열리게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문이 정말 소문인지 확인하고 바른 정보를 취했을 것입니다. 바르지 못했다면 바울을 가르치고 교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말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어떠한 일을 해도 미운 사람이 있나요?
2. 왜 미운 감정이 생기나요? 나 때문은 아닌가요?





행 21:37-22:1-16

위기를 기회로

37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1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 현재의 상황에 기대어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보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표지입니다.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무리들처럼 유대인들은 거세게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 구출(혹은 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는 22장 2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엄한 교훈을 받고, 이 도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의 열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그 또한 유대인 편에 있었던 자였음을 호소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을 통하여 그의 신분을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6절부터 그런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홀연히 임한 빛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순간에 시력을 잃은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로 갔습니다.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에게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순탄하던 그의 인생에 위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침착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실통한 묘수나 말의 연변으로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문제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나의 태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2. 문제를 해결할 때 성경, 기도 보다 다른 방법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주님의 각

행 22:17-21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축구를 하다 보면 오직 전문가만 볼 수 있는 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성공할 각이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필히 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그 패할 각 사이에서 성공할 각을 찾습니다. 성공할 각을 찾은 전문가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 각을 보았다고 해서 그 각을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각을 믿어주고, 함께 뛰어든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축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구든, 회사 협업이든, 교회 사역이든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쓰시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각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각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벌인 행각들로 인하여 도무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곤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나의 실력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선한 사람이고, 좋은 경험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도 그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전문가가 보는 각을 보며 감탄했던 적이 있나요?
2.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전문가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행 22:22-30****다양한 방법으로**

22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대 25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

해피인사이드**포아론 목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정적인 시선으로 판단하는 오류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요소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연설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참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홀연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자신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기 위하여 백부장을 통해 바울은 심문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백부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로마시민권자는 함부로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돈을 많이 들여 얻은 시민권자였고, 사도 바울은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엄연히 달랐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고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나아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을 적재적소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한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은혜들에 불평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늘 '아멘'을 외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오늘 나에게 있는 은혜들을 적어보세요.
2. 감사할 만한 은혜들입니까?



장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22장 2-21절> 쓰기

-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 13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 20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행 23:1-11

말씀 앞에 멈춰 서서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법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 바울이 이르되 회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로마의 천부장은 군사적인 권한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집된 공회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살기 등등한 채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자리에서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까지 양심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당당한 모습 때문에 종교 자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2절). 그러자 바울은 권력을 악용하여 폭력을 일삼아 율법을 범하는 지도자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판한 종교지도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4절).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바울은 곧바로 사과를 합니다(5절).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울이 비판했던 이 대제사장은 대단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비판했던 내용은 사실상 틀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던 이유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긴 잘못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출22:28)

그러므로 바울은 충분히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말씀이 늘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감정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지도자, 혹은 리더가 있습니까?
2.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서 나의 감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행 23:12-15****잘못된 열심**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 하겠다 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 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 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해피인사이드**전보아스 목사**

공회가 해산되고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로마군 영내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 을 향해 광분했던 무리 중 사십여 명이 정예부대를 꾸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아옵니다. 그리 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14절). 그들은 어떻 게든 천부장의 손에서 바울을 꺼내와 그의 생명을 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정이었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바울도 물론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였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 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열심으로 나사렛 이 단이라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을 죽이기 위해 식음 을 전폐하기로 결단한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 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2에서 예수님은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인데, 박해를 가하는 자들은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을 위한 일 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야 합니다. '사울'은 성경도 알았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바울'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2. 혹여라도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늘 주의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약속

행 23:16-35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식음을 전폐했던 사십 여명의 유대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소식을 듣고 천부장은 곧바로 백부장 둘을 불러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거대한 프로젝트를 명령합니다. 바울 단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하여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총 470명이 사용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거닐릴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병사의 절반가량을 고작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고 호송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물론 천부장은 나름대로 개인의 원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명성을 높이는데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은 그의 이러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를 로마로 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행23:11).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을 해하려던 계획을 무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가이사라 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명기 7:9)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두렵거나 염려하지 말며 힘 있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두렵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 있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행 24:1-9

하나님을 덧입은 자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흠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바울은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변호사 더들로는 몇몇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향한 적대감이 컸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엄청난 아부를 퍼붓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모두 벨릭스 총독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들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총독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부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로가 온갖 거짓말로 그를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바울을 고소할 때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일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들로에 의하면 바울은 '전염병'같은 자입니다(4절). 전염성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가만히 있는 수 없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전염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는 영향력과 전하는 복음 가운데 전염성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속한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또한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어떠한 전염성을 지니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입니까, 악한 영향력입니까?
2. 벨릭스는 지혜롭고 유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모함으로 악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행 24:10-23****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해피인사이드**전보아스 목사**

바울은 세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이며, 이단이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고작 예루살렘에 거한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전염병과도 같은 영향력을 펼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호소합니다(11-13절).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며, 자신이 지켰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이 함께 지킨 말씀이기에 자신을 이단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14-16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지, 성전을 더럽힐 어떠한 의도가 없음을 호소합니다(17-20절).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고 떳떳한 이유는 그의 호소는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만큼 강한 웅변은 없고, 사실만큼 당당한 설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후 바울은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 재판 보류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그는 살기등등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암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의 세월이라는 안전한 보호장치를 재판보류라는 명목 하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벨릭스가 그에게 제공한 자유로운 감옥생활은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옥생활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 혹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부끄럽거나 주눅들게 만드는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유아유치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색칠하기

사도행전 24장 10-23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세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